

재미한국학교협, 이승민 새회장 선출

07/19/2016 | 08:02:49AM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에 이승민(사진) 전 워싱턴한국학교협의회 회장이 선출됐다.

현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부회장으로 있는 이 전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총회를 겸해 열린 제 34 차 학술대회에서 뉴욕 출신의 심운섭 후보를 누르고 차기 총회장이 됐다. 회장 임기는 9월부터 2년 간이다.

이 당선자는 “한국학교 교사들의 위상 확립에 힘쓰겠다”며 새로운 사업도 적극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.

15 세 때 이민 온 1.5 세인 이 당선자는 애난데일고등학교와 조지메이슨대학을 나왔다.

한편 학술대회에서 한연성 워싱턴통합한국학교 교장이 15 년 근속 교사상, 열린문한국학교의 김미경 및 지수경, 중앙한국학교의 김영미, 필그림 한국학교의 방샘 교사가 10 년 근속상을, 와싱턴세종한국학교가 개교 30 주년상을 각각 받았다.

또 김대영 열린문한국학교 교장, 이승민 총회장 당선자, 한연성 워싱턴한국학교협 회장이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으며 황보철 고문, 중앙한국학교의 김선화 교감, 열린문한국학교의 송은경 교사 등 다수가 표창장을 받았다.

이번 총회에는 워싱턴에서 53 명의 교사가 참석했다.

내년 학술대회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8 월 10 일부터 12 일까지 열린다.

이병한 기자